

6/ 히노 아시헤이의 전후 평화주의와 냉전의 심상지리

‘반핵평화’ 담론을 중심으로 *

김지영



1955년 아시아제국회의(The Conference for Asian Countries)

출처: 다마이 후미타로(玉井史太郎) 씨 소장

김지영(金志映)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박사후연구원. 연세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과 일본학(연계전공)을 전공하고 도쿄대학대학원 총합문화연구과 비교문학비교문화 과정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 도쿄대학 총합문화연구과부속 다문화공생·통합인간학(IHS)프로그램 특임연구원, 성균관대학교 성균일본연구소 연구원 역임. 주저로 『日本文学の〈戦後〉と変奏される〈アメリカ〉: 占領から文化冷戦の時代へ』(ミネルヴァ書房, 2019)가 있으며, 참여한 책으로 『翻訳文学の視界: 近現代日本文化の変容と翻訳』(思文閣出版, 2012), *Multiple Translation Communities in Contemporary Japan*(Routledge, 2015), 『江藤淳: 終わる平成から昭和の保守を問う』(河出書房新社, 2019)가 있다.

* 이 논문은 2019년도 일본연구소 발전기금(위임기금 통보25)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https://doi.org/10.29154/ILBI.2020.22.170>

1. 들어가며: 전후일본의 평화주의와 냉전의 재심

1945년 8월, 패전과 함께 일본제국이 붕괴한 후 아시아에서는 미소대립 중심의 냉전구도로 지역질서가 빠르게 재편되어 갔다. 국공내전과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등의 일련의 폭력적 대립이 지속되어 온 동아시아에서, 제국 일본의 자리를 대신해 부상한 또 다른 ‘제국’적 헤게모니 미국은 일본을 냉전 아시아의 주요한 파트너로 선택하였고, 식민주의로부터 독립한 국가들은 저마다 냉전의 적대적 질서가 작동하는 자장 속으로 재배치되었다. 이처럼 탈식민화와 냉전체제 구축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포스트 제국의 아시아에서 냉전의 심상지리는 어떻게 구축되어 갔으며, 이는 전후일본의 평화주의 담론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을까?

전후일본의 반전평화운동을 고찰한 미치바 지카노부(道場親信)는 “냉전의 재심(再審)을 통한 제2차 세계대전과 식민지화/탈식민지화의 재심”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즉, 냉전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 체제’이자 “‘냉전’이라는 전쟁상태를 싸우기 위한 전시체제”라는 이중의 성격을 지니는데, 이 같은 조건하에 아시아에서는 “전후처리와 탈식민지화는 철저히 못한 채 폭력을 동반하면서 불문의 냉전체제가 구축되어 갔다”는 것이다.¹ 냉전의 고조를 배경으로 나타난 미국의 대일 점령정책 기조 전환과 관대한 강화가 일본의 전쟁책임을 면책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으며,² 그 위에 구축된 전후일본이 실은 ‘냉전’을 치르기 위한 ‘기지국가’였다는 선행연구의 지적은,³ ‘냉전’과 ‘평화’, 전쟁책임 면책과 평화사상의 구축이 모순적으로 접합된 전후일본의 구조를 드러낸다. 그런데 그러한 모순에도 불구하고 전후 일본인들이 실감으로서 ‘평화국가’를 살아왔다면, 그것은 어떠한 세계 이해와 자기 인식 속에서 가능했던 것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냉전의 심상지리가 표상과 담론을 통해 국민적 감각으로 실체화되어 간 과정에

1 道場親信, 『占領と平和: 〈戦後〉という体験』, 青土社, 2005, 19쪽.

2 이룰데면 吉田裕, 『日本人の戦争観: 戦後史のなかの変容』, 岩波書店, 2007, 74~81쪽을 참조.

3 남기정, 『기지국가의 탄생: 일본이 치른 한국전쟁』,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래 일본문학사에서 냉전은 주로 오다 마코토(小田実)와 가이고 겐(開高健), 훗타 요시에(堀田善衛) 등이 관여한 베트남반전운동(베트남에 평화를! 시민연합, 약칭 ‘베헤이렌’)의 경험을 중심으로 언급되어 왔다.⁴ 베트남전쟁에 주목할 때 일본의 냉전 경험은, 베트남 북쪽에서 나타난 미국의 폭력을 응시하는 과정에서 과거 일본제국의 ‘가해책임’을 자각한 전후일본이 ‘아시아’와 조우하는 과정으로 서사화된다.⁵ 이는 ‘열전’의 바깥에 놓여 온 일본의 냉전 서사로서 강력한 호소력을 지녀 왔는데, 이러한 서사 틀에서 소거되는 것은 점령에서 1950년대에 이르는 냉전 초기의 시기다.⁶ 그 결과로서 야기된 문제는, 이 시기에 군사적 ‘열전’의 후방에 놓이면서도, 미소가 전개한 글로벌한 문화냉전에서는 아시아의 최전방 전선이었던 일본의 특수한 냉전 경험 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했다는 점이다.⁷

4 川村湊, 『戦後文学を問う: その体験と理念』, 岩波書店, 1995 등을 참조. 이는 마루가와 테쓰시가 지적한 ‘냉전 무의식’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즉, 마루가와에 따르면 “전후일본은 동아시아에서 냉전구조를 미국과 합작으로 성립시켜 온 냉전의 ‘주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과 대면하지 않은 채 의식상으로는 줄곧 ‘방관자’로서 냉전 시대를 살아왔”는데(丸川哲史, 『冷戦文化論: 忘れられた曖昧な戦争の現在性』, 双風舎, 2005, 8, 18쪽.), 이러한 무의식은 문학 표상에 있어 냉전의 부재를 낳았고, 나아가 문학사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1950년대는 점령에서 고도성장기로 이행하는 과도기로 서만 기술되어 온 것이다.

5 이를테면 川村湊, 『戦後文学を問う』을 참조.

6 이와 관련하여, 근래 1950년대에 관한 연구가 진전되면서 이 시기를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는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동향은 고무적이다. 1950년대와 냉전을 문제화한 연구는, 한국전쟁 등을 소재로 한 소설에 주목하여 표상분석을 통해 전후일본이 실제로는 냉전에 연루되어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과, 한국전쟁기에 반전·평화의 저항문화운동으로 퍼져 나간 문학서를 운동이 냉전의 자장 안에 있었음을 밝힌 연구로 대별된다. 전자에 속하는 주요한 연구로는, 고바야시 코우키치, 「전쟁의 기억과 마주 보는 문학: 일본과 재일동포의 문학을 아우르며」, 『동아시아문화연구』 41,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07; 나카네 다카유키, 「훗타 요시에 『광장의 고독』의 시선: 한국전쟁과 동시대의 일본문학」, 『한국어와 문화』 7,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 2010; 서동주, 「‘전후’의 기원과 내부화하는 ‘냉전’: 훗타 요시에의 『광장의 고독』을 중심으로」, 『일본사상』 28, 2015; 남상욱, 「전후 일본문학 속의 ‘한국전쟁’: 한국전쟁과 전후 일본의 내셔널 아이덴티티」, 『비교한국학』 23, 2015 등. 후자에 속하는 연구로는 宇野田尚哉·川口隆行·坂口博·鳥羽耕史·中谷いずみ·道場親信 編, 『「サークルの時代」を読む: 戦後文化運動研究への招待』, 影書房, 2016; 道場親信, 『下丸子文化集団とその時代: 一九五〇年代サークル文化運動の光芒』, みすず書房, 2016 등을 참조. 또한, 최근 슈에이사(集英社)가 창립85주년 기념기획으로 발간한 ‘컬렉션 전쟁과 문학 시리즈’에 포함된 『コレクション 戦争と文学 冷戦の時代』 3, 集英社, 2012는 일본문학 속 냉전을 그린 작품을 다양하게 발굴하여 소개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기획이었다.

7 일본의 문화냉전에 관한 주요한 선행연구로는, 五十嵐武士, 『戦後日米関係の形成: 講和・安保と冷戦後の視点に立って』, 講談社, 1995; 松田武, 『戦後日本におけるアメリカのソフト・パワー: 半永久的依存の起源』, 岩波書店, 2008; 土屋由香, 『「親米」日本の構築: アメリカの対日情報・教育政策と日本占

이는 특히, 탈냉전이 진행된 1990년대 이후 동아시아에서 분출된 역사 인식의 대립과 그 배후에 노정된 일본과 여타 국가들 사이의 냉전 감각의 차이를 생각할 때 매우 문제적이다. 2005년에 출간된 『냉전문화론』(冷戦文化論)에서 마루카와 데쓰시(丸川哲史)는 전후일본 사회의 특징으로 ‘냉전의 무의식=망각’을 지적하면서, 일본인들에게 “냉전의 출구가 확실하지 않은 것은 그 입구—즉 냉전구조로 휩쓸려 들어간 역사나 냉전구조가 굳건히 세워진 역사—를 살지 않았기 때문(실제로는 살고 있었다 해도)은 아닐까?”⁸라는 의문을 던진 바 있다. 이러한 물음이 역설적으로 시사하듯이, 동아시아의 상호대화를 위한 기반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포스트제국과 냉전의 역학이 교차하던 시기에 제국의 기억이 어떻게 삭제되어 갔는지를 복기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이 글에서는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를 대표하는 작가로 알려진 히노 아시헤이(火野葦平, 1906~1960)의 1950년대 행보와 담론에 주목하여 전후일본의 평화주의가 어떻게 냉전 감각과 표리를 이루며 구축되어 갔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고가 히노에 주목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그가 일본제국의 전장을 누빈 대표적 중군작가였을 뿐만 아니라, 패전 후에는 냉전시기 문화외교의 전선을 횡단한 이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히노 아시헤이는 중일전쟁에 참전 중이던 1938년 아쿠타가와상 수상을 계기로 육군보도부로 전속되어 패전에 이르기까지 서주회전, 항주만 상륙작전, 필리핀작전, 버마·인파르작전 등 아시아태평양전

領, 明石書店, 2009; 貴志俊彦・土屋由香 編, 『文化冷戦の時代: アメリカとアジア』, 国際書院, 2009; 土屋由香・吉見俊哉 編, 『占領する眼・占領する声: 映画とラジオ』, 東京大学出版会, 2012; 藤田文子, 『アメリカ文化外交と日本: 冷戦期の文化と人の交流』, 東京大学出版会, 2015를 참조. 일본의 문학자와 문화냉전에 관해서는, 金志映, 『日本文学の〈戦後〉と変奏される〈アメリカ〉: 占領から文化冷戦の時代へ』, 京都: ミネルヴァ書房, 2019를 참조. 점령 종결 직후부터 많은 문학자들이 록펠러재단, 풀브라이트 기금, 아시아재단 등의 지원을 받아 도미하였고, 중국과 소련 정부의 초청을 받은 문학자 방문단이 잇따라 파견되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히노 아시헤이는 북한과 인도를 포함하여 1950년대에 가장 폭넓게 냉전전쟁을 횡단했다는 점에서 특이성을 지닌다.

8 丸川哲史, 『冷戦文化論: 忘れられた曖昧な戦争の現在性』, 8쪽.

쟁의 전장을 이동하며 중군작가로 활약하였다. 서주전선을 그린 『보리와 병정』(麦と兵隊, 1938)을 시작으로 『흙과 병정』(土と兵隊), 『꽃과 병정』(花と兵隊)으로 이어지는 ‘병정 삼부작’이 총 300만 부가 넘는 베스트셀러를 기록하면서 명실공히 국민적 인기작가의 입지를 다진 히노는, 1944년 남경에서 개최된 제3회 대동아문학자회의(大東亜文学者会議)에서 일본문학자를 대표하여 선언문을 낭독했으며, 일본문학보국회(日本文学報国会) 북규슈지부 간사장을 지내기도 했다. 바로 이러한 이력 때문에 히노는 패전 직후 문학자의 전쟁협력이 거론될 때 가장 먼저 호명된 작가이기도 하다. 그는 점령하에서 GHQ에 의한 공식추방처분을 받았으며, 공산당의 중앙기관지 『아카하타』(赤旗)가 발표한 ‘전쟁범죄인명부’에서 ‘문화전범’으로 지명되었고, 민주주의 문학 진영으로부터도 전쟁책임을 추궁받았다.⁹

그런데 이러한 전시기 이력에 비추어 볼 때, 그의 전후 행보는 더욱 흥미롭다. 패전 후에도 활발한 창작활동을 이어 간 히노는, 1950년대에 수차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방문하고 원수폭금지운동(原水爆禁止運動)에 협력했으며, 오키나와 미군기지 문제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소설·희곡 『끊겨진 밧줄』(ちぎられた縄, 1956)을 발표하였다. 이와 더불어 그가 이 시기에 문화사절로서 빈번하게 해외 각국을 방문하고 문화교류에 참가한 사실은 눈길을 끈다. 히노는 점령이 종결된 이듬해인 1953년, 더블린에서 개최된 세계 펜클럽대회 참가와 엘리자베스 여왕의 대관식 견학을 위해 유럽을 방문하고,¹⁰ 1955년에는 인도에서 개최된 아시아제국회의(The Conference for Asian Countries)에 일본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한 후 중국 및 북한 정부의 초

9 『아카하타』가 12월12일에 발표한 ‘전쟁범죄인명부’는 쇼와천황 히로히토를 필두로 군벌, 각료, 사법, 경찰, 정치가, 재벌, 언론 등 각 분야를 망라하였으며, ‘문화전범’ 리스트에는 일본문학보국회 사무국장을 지낸 구메 마사오(久米正雄)를 비롯하여 기구치 간(菊地寛), 오자키 시로(尾崎士朗), 요코미쓰 리이치(横光利一), 요시아 노부코(吉屋信子) 등과 함께 히노 아시헤이를 포함한 42명의 문학자의 이름이 포함되었다. 또한 미야모토 유리코(宮本百合子)와 나카노 시게하루(中野重治) 등 프롤레타리아 문학자를 중심으로 결성된 『신일본문학』(1946. 6.) 역시 ‘문학에 있어서의 전쟁책임 추궁’의 필요성을 선언하고, 히노를 포함한 25명의 문학자 리스트를 발표하였다. 渡辺考, 『戦場で書く: 火野葦平と従軍作家たち』, NHK出版, 2015, 277~279쪽을 참조.

10 1953년 유럽여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あしへい』(2017, 12.)의 「特集・ヨーロッパ旅日記」 등을 참조.

청을 받아 양국을 시찰하였다. 또한 그는 1957년에 소련 작가 일리야 에렌부르크(Ilya Ehrenburg)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나가사키에 동행했으며, 1958년에는 미국 국무성의 초청으로 미국을 시찰하였다.¹¹ 즉, 이채롭게도 히노는 냉전 초기에 자유진영, 공산진영, 제3세계에 이르기까지 냉전 진영을 두루 여행했는데, 이는 다시 말해 그 자신이 깊이 관여했던 일본제국의 교전국, 점령지, 식민지를 차례로 찾는 여정이기도 했던 셈이다. 더욱이 본고에서도 밝히듯이, 이러한 히노의 냉전 횡단의 배경에는 냉전의 양 진영이 대항적으로 발신한 문화외교가 있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히노는 냉전과 탈식민의 교차를 살펴보는 데 있어 매우 흥미로운 시점을 제공한다.

한편, 패전을 기점으로 국민적 인기작가에서 ‘문화전범’으로 반전되었던 히노의 평가는 근래 들어 다시금 큰 변화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패전 이후에 히노는 전시기를 대표하는 작가로 언급될 뿐 연구에서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는데, 최근 히노의 중군일기를 비롯하여 북규슈문학관(北九州文学館)에 소장된 자료의 일부가 번각(翻刻)이 이루어지면서 관련 연구성과가 잇따라 출간되고, 2013년 8월 일본방송협회(NHK)가 방영한 특집다큐멘터리 〈중군작가들의 전쟁〉(従軍作家たちの戦争) 등 미디어의 재조명이 이어지면서, ‘아시헤이 현상’이라고도 불릴 만한 새로운 동향이 나타나고 있다.¹² “히노는, 그 스스로가 전쟁을 체험했기 때문에 더욱 평화를 간절히 바”랐으며,¹³ “패전 후 10년 이상의 세월에 걸쳐 (...) 흔들리지 않는 비전(非戰)의 결의”에

11 이와 같은 전후 행보에 관해 마쓰다 지카코(増田周子)는 “공직추방 후의 히노는 자신의 눈으로 보고 들은 것 외에는 믿지 않는다는 강한 신념을 갖고 시야를 넓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 시찰에 나서 아시아 각국, 유럽, 미국 등을 여행”했으며 “그 여행은 두 번 다시 비극적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히노의 신념을 관통하는 평화활동의 일환이기도 했다.”라고 보고, 원수폭금지운동과 오키나와 문제까지를 아울러 “세계적 평화공헌”으로 평가하고 있다. 増田周子, 『1955年 アジア諸国会議とその周辺: 火野葦平インド紀行』, 大阪: 関西大学出版部, 2014, 2쪽.

12 坂口博, 「火野葦平と沖繩」, 『脈』 95号, 2017.11, 14쪽. 일본방송협회(NHK)는 2013년 12월 7일에도 ETV 특집 〈전쟁에서 쓰다: 작가 히노 아시헤이의 전쟁〉(戦場で書く: 作家 火野葦平の戦争)을 방영하였다. 근래 출간된 히노 관련 연구서로는 増田周子, 『1955年アジア諸国会議とその周辺』 외에 渡辺考, 『戦場で書く: 火野葦平と従軍作家たち』; 火野葦平, 『インパール作戦従軍記: 葦平「従軍手帖」全文翻刻』, 東京: 集英社, 2017; 『戦争と文学スペシャル: 戦争を読む』, 集英社, 2015; 五味淵典興, 『プロパガンダの文学: 日中戦争下の表現者たち』, 共和国, 2018 등.

13 増田周子, 『1955年アジア諸国会議とその周辺』, 34쪽. 마쓰다의 연구는 자료의 실증을 기반으로 히노의 전후 행보를 고찰한 선구적 연구다.

도달했다¹⁴고 보는 근래의 연구 동향은, 작가의 전후 이력에 주목하여 ‘평화주의’의 관점에서 히노의 재평가를 시도한다.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2016년에는 북규슈 와카마쓰(若松)시에 있는 히노 아시헤이 자료관(火野葦平資料館)에서 히노의 전후를 조명한 <아시헤이와 오키나와·원폭·아시아>(葦平と沖縄・原爆・アジア)전이 개최되었다. 전시의 ‘인사말’은 기획 취지를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올해는 전후 71년째가 됩니다. 작년에는 ‘전후 70년’이라고 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 흐름은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전후 평화운동과 히노의 관련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기획전을 개최합니다. 이 관계는 지금까지 거의 이야기되지 않았었습니다.

아시헤이의 오키나와에 대한 애착은, 수많은 소설을 쓰고, 기획 있을 때마다 오키나와 문제를 여론에 호소하는 발언을 반복해 온 것으로 보아 명백합니다. (...) 전전, 전중, 전후의 격변을 본 아시헤이이기에 남다른 감회가 있었습니까. 또한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문제는 1956년의 「끊겨진 밧줄」 공연으로부터 60년이 지난 후에도 기본적으로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2011년 3·11 이후에는, 원자폭탄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핵’문제가 현재진행형의 무거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핵병기 폐지에 대한 염원은 더욱 간절해집니다. 아시헤이는 일찍 원폭의 비인도성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에 야마하타 요스케(山端庸介)의 원폭사진집 간행을 돕고, 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도 협력합니다. ‘원폭의 그림’(原爆の図)의 마루키(丸木) 부부와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원폭은 「혁명전후」(革命前後)에서도 그려지며, 그는 피폭지를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

아시아의 평화보다도 각국의 이익에 따른 무력충돌의 위험성 쪽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955년 4월, 인도에서 개최된 ‘아시아제국회의’에 일본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한 아시헤이라면 뭐라고 발언할까요? “절대로 두 번 다시 전쟁이

14 渡辺考, 『戦場で書く: 火野葦平と従軍作家たち』, 316쪽.

있어서는 안 된다”고, 처참한 전쟁터를 많이 보아 왔기 때문에, 역시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시헤이는 인도, 중국, 북한을 돌면서 가능한 한 공평한 시점에서 현실을 보려고 했습니다. (...) 1945년부터 1960년에 서거하기까지 아시헤이가 관여한 문제는 모두 오늘날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¹⁵

여기에서는, 안으로는 후쿠시마와 오키나와로 상징되는 ‘핵’과 ‘기지’ 문제를 안고 있고,¹⁶ 밖으로는 탈냉전 이후 동아시아에서 대두된 역사 인식의 대립과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직면해 있는 현재적 갈등상황에 대한 해법을 히노의 전후 ‘평화주의’ 속에서 읽어 내려는 움직임이 확인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아시헤이 현상’은 현재 일본의 평화주의 담론과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의 시도는, 히노 아시헤이의 전후 ‘평화주의’를 냉전체제로 편제되어 가던 1950년대 냉전 아시아의 지평에서 재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 천착한다. 첫째, 문화대사로서 히노의 냉전 진영 횡단을 추동한 문화정치에 주목하면서, 그의 눈에 비친 냉전 아시아의 풍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포스트제국의 아시아에서 냉전적 역학은 어떠한 양상으로 작동했으며, 일본제국의 잔상이 선명했을 냉전 초기에 히노는 아시아와 어떻게 대면했는가? 둘째, 냉전 시기 문화외교의 장에서 냉전의 정치와 교섭하면서 전후일본의 평화주의가 구축되어 간 궤적을 추적하는 것이다.

앞서 인용한 전시기획의 취지문이 말하는 바와 같이, 히노의 전후 평화주의의 핵심을 이루는 두 기둥은, ‘반전평화-오키나와-반기지운동’과 ‘반핵평화-히로시마·나가사키-원수폭금지운동’으로 정리된다. 이 가운데 본고

15 坂口博, 「火野葦平と沖繩」, 『脈』 95号, 2017. 11., 14~15쪽.

16 다카하시 데쓰야는 후쿠시마와 오키나와의 원전과 미군기지에 의해 ‘평화’와 ‘번영’을 지탱해 온 전후일본의 불균형한 권력 구조를 ‘희생의 시스템’으로 명명한 바 있다. 高橋哲哉, 『犠牲のシステム: 福島・沖縄』, 集英社, 2012.

에서는 후자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히노 아시헤이가 발신한 ‘평화주의’가 각각 아시아, 소련,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냉전 상황과 맞물리면서 보편주의적 평화주의로 수용되었는지를, 아시아제국회의(1955년), 에렌부르그의 방일(1957년), 미국 시찰(1958년)로 연속적으로 펼쳐져 간 문화외교의 장에 주목하여 살펴볼 것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히노의 평화주의적 담론은 그 성립조건으로서 ‘냉전’을 내장한 것이었으며, ‘냉전’이라는 역사적 조건에 기대어 ‘제국’을 삭제한 냉전서사였음을 밝히고자 한다.

2. ‘히로시마·나가사키’의 심상지리:

제국의 피폭에서 냉전 속 ‘반핵평화’로

이 장에서는 먼저 히노의 ‘반핵평화’ 담론의 기점에 있는 히로시마·나가사키의 원폭경과 본고의 논의의 배경이 되는 1950년대의 핵 상황을 확인해 두기로 한다.

히노는 피폭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작가 가운데 예외적으로 일찍부터 원폭문제에 관심을 보였다. 이는 전시 중의 경험에 기인한다. 1945년 8월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투하 당시 히노는 육군 서부군보도부(西部軍報道部) 소속으로 후쿠오카에 주둔하고 있었다. 8월 9일, 나가사키에 신형폭탄이 투하되자 다음 날(10일) 같은 보도부 소속 중군 카메라맨 아마하타 요스케는 육군성의 지령으로 작가 히가시 준(東潤)과 화가 야마다 에이지(山田栄二)와 함께 조사를 위해 나가사키시에 파견되어 피해 상황을 촬영하였다. 부대로 복귀한 아마하타가 촬영한 필름에는 피폭지의 참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히노의 유작이자 자전적 소설인 『혁명전후』(1959)에서 이때의 정황은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사람들을 떨게 만든 것은, 가와다(야마다 에이지가 모델, 인용자 주)의 그림과 아마하

타의 사진이었다. (중략) 이 유례없는 잔인한 병기에 대해 사람들은 두려움과 함께 격렬한 분노로 타올랐다. 그것은 이미 적이라든지 아군이라든지, 승리라든지 패배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하는 대립 관념을 넘어서 휴머니즘에서 나오는 순수한 분노처럼 느껴졌다.¹⁷

이어지는 장면에서 히노 자신이 모델인 쓰지 쇼스케(辻昌介)는 아마하타에게, “미국의 비인도적 잔학행위를 증명하는 귀중한 자료이므로 꼭 남겨두”도록 조언하는데, 실제로도 히노는 필름 보관에 조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⁸ 그리하여 GHQ 점령이 종결된 직후인 1952년, 아마하타의 기록사진집 『원폭의 나가사키』(原爆の長崎)(第一出版社)가 간행되자 히노는 발문(跋文) 「세계에 단 하나뿐인 기록」(世界に唯一つの記録)을 기고하여 “두 번 다시 이러한 악마의 불이 인간을 불태워 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피력하고, 나가사키의 기록을 “평화운동을 이끌 정의롭고 강력한 지침”으로 삼아 “일본인뿐 아니라 전 세계인이 전쟁을 피해 평화를 확립해야만 한다.”라고 역설하였다.¹⁹

이처럼 나가사키의 실상을 목도한 히노는, 실제로 말년까지²⁰ 지속적으로 평화운동에 협력하고, 반전평화의 목소리를 높여 갔다. 그런데 앞서 인용한 장면에서 히노가 나가사키의 원폭투하라는 ‘미국의 폭력’을 ‘휴머니즘’에 의거해 비판하고 있는 점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일견 정치성으로부터 자유로운 듯 보이는 보편주의적 ‘휴머니즘’의 수사는, ‘히로시마·나가사키’를 일본제국이 수행한 일련의 전쟁에서 탈맥락화한다는 점에서 명백히 정치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히노 자신의 전쟁책임 의식과도 무

17 火野葦平, 『革命前後』上, 社会批評社, 2014, 154쪽.

18 坂口博, 「火野葦平と沖繩」, 16쪽.

19 火野葦平, 「世界に唯一つの記録」, 『記録写真 原爆の長崎』, 第一出版社, 1952, 27쪽. 히노는 발문에서 아마하타의 사진을 ‘유일한 원폭기록사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1952년 8월 6일자 발간 『아사히 그래프』(アサヒグラフ) 「원폭피해 최초공개」 특집호와 거의 동시에 출판된 아마하타의 사진집은 나가사키 폭격의 실상을 가장 먼저 일반에 알린 매체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다.

20 히노는 1960년 1월 24일,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다. 사후에 발견된 헬스 메모에는, “죽습니다. 아쿠타가와와는 다르지만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라는 문구가 남겨져 있었다.

관하지 않다. 즉 ‘휴머니즘’에 기반한 히노의 전후 평화주의 담론은 포스트 제국의 맥락에서 재고될 여지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주지하다시피 전후일본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둘러싼 담론과 운동은 냉전 시기 국제정세 및 미국의 핵전략과 밀접하게 맞물리면서 전개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의 두 발의 원자폭탄 투하가 소련과의 ‘차가운 전쟁’을 염두에 둔 미국의 선제적 냉전 전략이었음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러한 핵의 독점 상황은 오래가지 않았다. 뒤이어 1949년 8월, 미국의 예상보다 일찍 소비에트가 핵실험을 성공시켰고, 양국의 수소폭탄 개발이 이어지면서 미소 간 핵 경쟁은 더욱 격화되었다. 핵전쟁의 위협 앞에 고조된 세계적 반대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1953년부터 아이젠하워 정권이 추진한 ‘원자력의 평화이용 캠페인’(Atoms for Peace)의 배후에는, ‘핵’의 이미지 전환을 통해 히로시마·나가사키 피폭의 기억을 망각하도록 유도하여 일본을 미국의 핵우산 아래 안착시키고자 하는 세계전략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²¹ 그러나 1954년 3월, 비키니환초에서 미국이 실행한 수폭실험으로 인해 발생한 방사성 낙진으로 근방을 조업하던 어선 제5후쿠류마루(第五福龍丸)의 선원이 피폭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일본 내 반핵 여론은 급속히 확산되었고, 이는 이듬해에 제1회 원수폭금지대회 개최로 이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점차 힘을 얻어 간 것 또한, ‘히로시마·나가사키’를 ‘제국’의 피폭이 아닌 ‘인류’의 피폭으로 기억하는 담론이었다.

선행연구에서 냉전 시기 일본의 핵 담론은 미소의 핵 경쟁하에 전개된 미국의 외교전과 그 수용이라는 맥락에서 논의되어 온 경향이 있다.²² 하지만 본고에서는 시각을 바꾸어 일본을 중심에 두고, 이러한 냉전 상황 속에서 일본의 평화주의적 담론이 문화외교의 장에서 발신되고 추인되어 간 과정과 맥락을 구체적으로 추적해 보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먼저, 히노가

21 吉見俊哉, 『夢の原子力: Atoms for Dream』, 岩波書店, 2012, 122쪽.

22 이클레뎀 吉見俊哉 『夢の原子力: Atoms for Dream』; 土屋由香·吉見俊哉 編, 『占領する眼・占領する声: 映画とラジオ』, 東京大学出版会, 2012 등을 참조.

참가한 아시아제국회의에 주목하여 전후일본이 1950년대에 아시아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평화주의’ 담론을 구축해 갔는지를 살펴보자.

3. 전후일본의 평화주의와 ‘아시아’:

1955년 아시아제국회의를 시좌로

1955년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아시아제국회의가 개최되었다. 국제정세의 긴장 완화를 목적으로 개최된 이 민간주도 회의에는 중국과 소련,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 14개국으로부터 총 200명에 이르는 대표가 참가하여²³ 평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정치·경제·문화·사회·과학의 분야별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나흘간에 걸쳐 이어진 논의 끝에 각국의 대표는 1954년에 네루 수상과 저우언라이 수상이 발표한 평화 5원칙 공동선언(영토·주권 존중, 상호불가침,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 평화적 공존)을 추인하고, 아시아의 연대와 평화를 공동결의하였다. 일본에서는 마쓰모토 지이치로(松本治一郎, 참의원·부락해방운동가) 단장을 필두로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34명의 대표가 파견되어, 제국주의적 침략의 과거를 반성하고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의와 함께 ‘평화 5원칙’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²⁴ 히노는 전규슈평화연락협회(全九州平和連絡協会)의 추천으로 작가 기노시타 준지(木下順二) 등 8인과 함께 ‘문화 문제’에 관한 일본대표에 포함되었다.

제3세계 비동맹운동의 효시로 회자되는 반둥회의(정식명칭: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에 비해 이보다 보름 앞서 개최된 아시아제국회의는 잘 알려져 있지

23 그 외 회의 참가국은 버마, 파키스탄, 베트남민주공화국, 실론, 레바논, 요르단, 시리아, 몽골. 북한은 한실야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했다.

24 増田周子, 『1955年 アジア諸国会議とその周辺』, 54쪽. 히노의 일기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아시아제국회의 참가를 실증적으로 추적한 선구적 연구로, 마쓰다는 냉전적 상황을 언급하면서도 히노의 문화외교를 ‘국제적 평화공헌’으로 평가하고 있다.

않지만, 아시아·아프리카 29개국의 정부 대표가 집결한 반둥회의에 비해 민간 주도의 아시아제국회의는 “아시아적 문제군에 기초해 세계평화의 문제를 제기”하고 “아래로부터의 아시아 연대를 표방”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평가받는다.²⁵ 또한 이 회의는 점령으로부터 독립하여 국제사회로 복귀한 일본이 아시아와 조우한 첫 대규모 민간회의였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회의를 앞두고 일본에서는 “회의에 대한 관심을 국민들 사이에 확대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광범위한 대표를 회의에 파견할 목적”으로, 아시아제국회의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그 명단에는, 쓰루미 유스케(鶴見祐輔, 참의원), 이시바시 단잔(石橋湛山, 중의원), 히라쓰카 라이쵸(平塚雷鳥, 부인단체연합회회장), 시미즈 이쿠타로(清水幾太郎, 사회학자·평론가), 미나미 히로시(南博, 사회심리학자·교수), 마루키 이리(丸木位里, 화가) 등 각계를 망라한 인사가 포함되었으며, 문학계에서는 아베 도모지(阿部知二, 작가·영문학자), 이시가와 다쓰조(石川達三, 작가), 미야모토 겐지(宮本顯治, 정치가·평론가), 나카노 시게하루(中野重治, 작가·시인·정치가), 오다기리 히데오(小田切秀雄, 평론가), 오니시 교진(大西巨人, 작가·평론가) 등이 이름을 올렸다.²⁶

아시아제국회의일본준비위원회가 발행한 『14억 명의 목소리: 아시아제국회의 및 아시아·아프리카회의 기록』(十四億人の声: アジア諸国会議およびアジア・アフリカ会議記録, 1955)을 비롯하여 회의와 관련된 일련의 기록은, 평화와 우정의 구호에 한껏 고양된 현장 분위기를 전한다. “아시아의 연대와 평화 만세”(Long Live Asian Solidarity and Peace)라는 슬로건이 내걸린 회의장의 단상에는 아시아 각국의 국기가 늘어서고, 각양각색의 민족의상을 입은 각국의 대표들은 한자리에 모여 열띤 토의를 이어 갔다. 오랜 전쟁과 예측에서 해방된 신생 독립국 대표들은 조국 건설을 향한 열망에 차 있었고, 일본의 참

25 백원담, 「아시아에서 1960~70년대 비동맹: 제3세계운동과 민족·민중 개념의 창신」, 성공회대동아시아연구소 편, 『냉전 아시아의 문화풍경2: 1960~1970년대』, 현실문화, 2009, 32쪽. 반둥회의는 1955년 4월 18일에서 24일까지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개최되었다.

26 アジア諸国会議日本準備会 編, 『十四億人の声: アジア諸国会議およびアジア・アフリカ会議記録』, おりぞん社, 1955, 220~233쪽.

가자는 ‘평화와 우정’으로 아시아와 교류하는 감격을 토로하였다.²⁷ 그런데 여기서, 제국에 의한 식민과 점령 지배를 겪었던 아시아 국가들과 제국주의 국가였던 일본 사이에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경험의 차이가 가로놓여 있었음을 상기한다면, 이토록 이른 시기에 양자가 반식민주의·반제국주의의 기치 아래 평화의 구호를 공유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의를 둘러싼 복잡한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주지하듯 1950년대 중반을 특징짓는 세계사적 흐름 가운데 하나는 아시아 내셔널리즘의 고양과 제3세계 세력의 대두였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독립한 신생국가들은 미국과 소련을 양대 축으로 하는 냉전체제로의 편입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에 비동맹주의를 주도하면서 제3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르던 인도에서 개최된 아시아제국회의의 역시, 이러한 흐름 안에 위치한다. 하지만 세계의 평화공존을 기치로 내걸고 “당파적이지 않은”²⁸ 회의를 표방한 아시아제국회의는, 소련과 중국이 참가하면서 공산주의적 색채를 띠는 것은 불가피했다. 이를테면 회의에 참가한 히노는 귀국 후 『신일본문학』(新日本文学) 주최로 열린 좌담회에서, 비동맹 외교를 주도하던 네루 수상이 처음에는 편향된 정치색 때문에 이 민간회의에 난색을 표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경위를 설명한 바 있다.

아시아제국회의를 인도에서 개최하는 데 네루 씨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평화운동이 공산당이라는 오해가 있고, 지금까지 그런 말을 들어도 어쩔 수 없는 방식도 있었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평화운동은 인간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네루 씨는 자기 나라에서 공산당 회의가 열리는 것을 반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 하지만 이번 회의에는 중국에서 귀모뤄가 와 있고, 소

27 이를테면 長瀬清子, 「平和と友情の旅: アジア諸国会議よりかえりて」, 『新女性』 57号, 1955. 10. 1. 増田周子, 『1955年 アジア諸国会議とその周辺』, 64~68쪽에서 재인용.

28 ラメシユワリ・ネール夫人, 「アジア諸国会議の意義と役割: 四月六日開会式あいさつ」, アジア諸国会議日本準備会 編, 『十四億人の声: アジア諸国会議およびアジア・アフリカ会議記録』, 14쪽.

비에트에서 치호노프가 와 있고, 게다가 평화5원칙을 저우언라이와 함께 발표한 입장으로서는 모른 척은 할 수 없게 된 것이지요.²⁹

결국 네루 수상은 회의에 공식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대신 각국의 대표를 수상관저로 초청하였는데, 대표단의 일원으로 네루와 접견한 히노는 기행문 「꽃과 소와 거지의 거리」(花と牛と乞食の街)에서, 중국과 소비에트의 대표 사이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네루를 위태로워 보이는 모습으로 묘사함으로써, 세 사람이 가까스로 손잡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전하기도 했다.³⁰ 이러한 관찰에서도 드러나는 바와 같이, 아시아제국회의는 비동맹중립노선의 제3세계와 공산주의 진영 국가가 연대하면서 길항하는, 첨예한 냉전외교의 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은 이 회의의 선전이 코민테른 기관지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아시아제국회의를 ‘좌익계 평화운동의 일환’으로 규정하였다. 덧붙여 일본에서 파견된 대표단은 좌파진영 인사가 중심을 이루었다는 사실은, 이들과 연대하고자 했던 일본 내의 세력 지형을 보여 준다.³¹

이렇듯 저마다의 기대가 교차하는 가운데 열린 아시아제국회의에서는 아시아의 해방과 세계평화, 서양 제국(諸国)에 의한 식민주의 등이 주요한 의제로서 채택되었다. 이 가운데서도 무엇보다 긴박한 화두는 핵전쟁의 위협이었다. 이제 갓 독립을 쟁취하여 새로운 국민국가 건설의 과제와 마주하고 있던 제3세계 신생국가들에게는 강대국 사이의 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절실한 선결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회의의 의장을 맡은 라메쉬와리 네루(Rameshwari Nehru) 여사가 개회식 연설에서 “서구제국의 제국주의적 야심의 희생”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획득한 아시아제국이 다시금 핵전쟁의 위협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원수폭을 언급한 것은 이러한

29 火野葦平・田村茂・中島健蔵, 「インド・中国・朝鮮の印象: 新日本対談(五)」, 『新日本文学』, 1955. 9., 168쪽.

30 火野葦平, 「花と牛と乞食の街」, 『赤い国の旅人』, 朝日新聞社, 1955, 9~11쪽.

31 外務省アジア局, 『アジア総覧』, 時事通信社, 1956; 増田周子, 『1955年 アジア諸国会議とその周辺』, 57쪽에서 재인용.

맥락에서였다. 네루 여사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생존자들은 지금도 그 영향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원폭을 능가하는 살상능력을 갖는 수폭이 개발되어 “비키니 실험의 희생자들은 또다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공존을 대신하는 것은 공멸뿐”이라고 인류의 존망을 건 평화공존을 역설하였다.³²

이처럼 ‘유일 피폭국’ 일본이 호명되는 가운데, 일본의 대표단 역시 회의에서 원수폭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내걸고 총력을 다한 평화주의 민간외교를 전개하였다. 이는 출발에 앞서 발표된 성명문에서도 잘 드러난다. 준비위원회의가 논의를 거듭한 끝에 완성한 「일본대표단 성명」은, “오늘날 전 세계적인 긴장은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도 급속히 고조되고 있으며, 원자전쟁의 기획은 우리 아시아 민족들의 파멸을 불모로 삼아 준비되고 있다.”라는 국제정세 인식하에, “원수폭의 최초이자 직접적인 피해자인 일본 국민은 지금이야말로 출선하여 아시아의 제 국민들과 함께 이러한 기획을 미연에 방지하고, 세계평화를 위한 보루가 되어야 할 사명을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선언하였다.³³ 대표단이 출발하기 전에 열린 환송회에서는 반전가요 ‘원폭을 용서치 말라’(原爆を許すまじ)의 합창이 울려 퍼졌고, 일본을 대표하여 뉴델리의 회의장에 선 참의원 고라 도미(高良とみ)는 원수폭문제에 관해 연설하였다. 때마침 1955년 8월에 히로시마에서 개최될 제1회 원수폭 금지세계대회를 앞두고 파견된 일본대표단은 아시아제국회의에서 세계 각국의 찬동을 얻고자 원폭 문제를 적극 어필하였다.³⁴

한편, ‘반식민·반제국주의’ 과제와 관련하여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문은 참가국들의 세계인식을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아시아제국회의의 정치결의를 고찰한 백원담은, 회의에 참가한 아시아 민족들이 처해 있던 문제를,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전략, 곧 냉전 아시아를 만들어 가는 미국의 분

32 ラメシユワリ・ネール夫人, 「アジア諸国会議の意義と役割: 四月六日開会式あいさつ」, 12~21쪽.

33 アジア諸国会議日本準備会 編, 『十四億人の声: アジア諸国会議およびアジア・アフリカ会議記録』, 234~235쪽. 성명은 출발에 앞서 1955년 3월 29일자로 발표되었다.

34 増田周子, 『1955年アジア諸国会議とその周辺』, 117쪽.

열주의적 아시아 재편 기획에 따라 아시아 사회가 겪는 어려움”으로 요약한 바 있다.³⁵ 제3세계 국가들에게 있어 새로이 출현한 미소 간 냉전대립구도는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위협으로 간주되었는데, 특히 아시아지역에서 냉전의 중주국 미국은 군사조약이나 동맹을 통해 지역을 분열시키고, 타국 영토에 군사기지를 주둔시키는 방식으로 새로운 형태의 ‘제국주의’적 헤게모니를 행사하는 존재에 다름 아니었다.³⁶ 그러한 의미에서, 일본대표단 단장 마쓰모토 지이치로가 회의석상에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미일행정협정을 ‘일본의 예속’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규정하고, 일본을 재군비화하고 그 영토 내에 외국의 군사기지를 주둔케 하는 미국을 규탄하면서, “아시아인은 아시아 영토 내에 원자력 병기 저장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 발언은,³⁷ ‘신식민주의’의 위협 아래 놓인 일본의 처지를 응축하여 표현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아시아제국회의가 공동으로 발표한 결의문에는 일본의 국제연합(UN) 가입과 ‘핵 기지’ 오키나와의 일본 복귀를 촉구하는 문구가 포함되었다. 결의문은 일본이 타국과 일체의 군사협정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들면서, “일본은 [아시아]제국 간의 관계에 있어 완전히 평등한 지위를 부여받아야 한다.”라는 입장을 명기하였는데, 백원담이 지적하듯이 이는, “일본을 (...) 아시아의 일원으로서 위치시키고 일본과 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상호 수평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다름 아닌 일본에 의해 식민지 침략을 받았던 피해 아시아가 표명”했다는 점에서 역사의 아이러니였다고 할 수 있다.³⁸

35 백원담, 「아시아에서 1960~70년대 비동맹: 제3세계운동과 민족·민중 개념의 창신」, 34쪽. 단, 백원담은 아시아제국회의의 한국어역 명칭으로 ‘아시아 제국(諸國) 인민회의(약칭 아시아 인민회의)’를 사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본회의가 일본에서 갖는 맥락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일본어 명칭의 직역으로 ‘아시아제국회의’를 사용한다.

36 백원담, 「아시아에서 1960~70년대 비동맹: 제3세계운동과 민족·민중 개념의 창신」, 35쪽. 제3세계의 동향과 일본과의 교류에 관해서는, 곽형덕, 「아시아아프리카 작가회의와 일본: 제국주의와 내셔널리즘의 교차 지대」, 한국일본학회 편, 『일본 전후문학과 마이너리티 문학의 단층』, 보고서, 2018도 참조. 전후일본이 이른 시기에 아시아와 접촉하는 창구가 되었던 아시아제국회의는, 1961년에 도쿄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아프리카 작가회의(AA작가회의)로 이어지는 연속선상에서 남긴 유산을 규명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37 増田周子, 『1955年アジア諸国会議とその周辺』, 97쪽.

38 백원담, 「아시아에서 1960~70년대 비동맹: 제3세계운동과 민족·민중 개념의 창신」, 35쪽.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 가운데에서 ‘문화대표’로 참석한 히노는 어떠한 ‘평화주의’를 발신했는지 살펴보자.

우선 특기할 점은, 아시아태평양전쟁 당시 보도반원으로서 중국대륙을 기점으로 남으로는 인도와 필리핀까지 널리 아시아의 전장을 횡주했던 히노에게, 아시아제국회의는 패전 후에 처음으로 아시아와 직접 대면하는 자리이기도 했다는 점이다. 『붉은 나라의 여행자』(赤い国の旅人)의 「후기」[後書]에서, 히노는 1944년 임팔작전 종군 당시 버마에서 국경을 넘어 인도로 진군했던 과거에 비추어 아시아제국회의 참가를 회상하면서, “이제 아시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다시 인도를 방문하니 감개무량했다.”라고 감회를 적고 있다.³⁹ 또한 그는 2년 전의 유럽여행과 비교해 볼 때 인도, 중국, 북한 여행은 “근본적으로 달랐다”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연결된 아시아와 아시아인의 문제가 나에게 절실한 것을 심어 준 듯하다.”라고 그 의미를 총괄하였다. 이와 같은 발언이 내포하는 구체적 함의를 파악하기 위해, 히노가 회의에 임하면서 문화대표로서 발표한 결의문 「전아시아를 아름다운 문학의 고리로」(全アジアを美しい文学の鎖で)⁴⁰를 참조하고자 한다. 아시아제국회의준비위원회가 발간한 단행본에도 수록된 만큼 회의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다.

히노의 결의문은, 전시중을 회고하는 「고백」(告白)과 회의 참가국을 향한 문화교류안을 담은 「보고와 제안」(報告と提案)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1944년, 일본군부대가 버마에서 국경을 넘어 인도로 침입했을 때에 나는 그 일원이었다.”로 시작되는 「고백」의 모두(冒頭)는, 아시아제국회의 참가가 히노에게는 일본제국이 아시아를 침략했던 과거 경험을 반추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음을 보여 주는데, 이 글에서 히노는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아시아인들끼리 총을 겨눠야만 했던 불행”한 역사로서 회고한다. 즉 히

39 火野葦平, 「後書」, 『赤い国の旅人』, 309쪽. 히노의 작품에는 임팔 작전을 그린 소설 『청춘과 흙먼지(青春と泥濘)』(1952)가 있다.

40 火野葦平, 「全アジアを美しい文学の鎖で」, アジア諸国会議日本準備会 編, 『十四億人の声: アジア諸国会議およびアジア・アフリカ会議記録』, 214~220쪽.

노에 따르면, 중국대륙의 전장을 누빌 때에도, 필리핀에 종군했을 때에도, 버마와 인도를 공격했을 때에도, 항시 뇌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은 “우리들의 적은 아시아인이 아니라는 강한 자각”이었다. 언제나 적은 ‘같은 형제’인 아시아인이 아닌 영미 등의 서양제국이었으며, 생사를 오가는 격렬한 전쟁터에서도 “한 차례 초연(硝煙)이 가시고 나면 아시아인들끼리의 피의 결합은 흔들리지 않는 친근감이 되어 적과 아군의 구별을 날려 버”리곤 했다. 이 같은 서사의 연장선상에서 히노는, 이제 “백인종의 사슬에서 해방된 아시아 제 민족이 종래의 일체의 원한을 벗어나 뉴델리에 모여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날을 맞이하니, 세계의 여명에 자유와 평화의 종을 울리는 축제”라고 아시아제국회의의 감격을 말한다. 또한 그는 일본을 대표하여, “우리 일본은 여러 가지 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아시아인들에게 깊이 사죄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일본제국의 과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후 곧바로 이어서, “하지만 아시아제국 대부분이 현재 독립하여 아시아인들끼리 손을 잡을 시기가 도래한 것을 생각하면 전화 속에서 우리가 마음에 품었던 아시아인의 해방, 아시아인끼리의 결합의 꿈이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하며 가슴 벅찬 감회를 토로한다.⁴¹

구미 열강의 식민주의 아래 놓인 아시아 민족의 해방과 단결이라는 구호는 익숙한 대동아공영권의 레토릭(rhetoric)을 반복한 것이었다. 특히 히노가 이어서 “이 회의를 기회로 전 아시아에서 문학의 교류가 이루어져 본질적으로 평화의 사도인 문학자들의 결합을 통해 아시아에 평화의 빛이 비취 오는 희망을 품는 것도 더 이상 꿈은 아닐 것이라 믿는다.”라고 발언할 때, 그 목소리에는 대동아문학자회의에서 선언문을 낭독하던 히노의 목소리가 메아리치는 듯하다.⁴²

41 火野葦平, 「全アジアを美しい文学の鎖で」, 214~217쪽.

42 田中艸太郎, 『火野葦平論: 付: 戦争体験・論の試み』, 東京: 五月書房, 1971, 77~78쪽. 1944년에 난징에서 열린 대동아문학자대회에서 히노는 다음과 같은 “대회선언문”을 낭독하였다.

“우리는 이번에 공습하에 있는 중화민국의 수도 난징에서 제3회 대동아문학자대회를 개최한다. 깊이

전시기를 대표하는 작가 히노의 전쟁책임 의식에 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반복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 왔다. 패전 직후에는 전쟁협력에 대한 강한 규탄이 집중되었으나, 현재에는 시대가 안고 있던 역사적 조건 속에서 그 결을 재조명하는 입장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요컨대, 일관되게 서민에 밀착한 시선에서 전쟁터에 선 일반병사들을 애정을 담아 그린 ‘병사[兵隊]의 대변자’였다는 데에 작가의 주관적 ‘선의’를 평가하면서도, 하지만 이러한 소박한 ‘서민심정’은 전쟁을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데 있어 무력했음을 지적하고,⁴³ 전후에 발표된 『청춘과 흙먼지』, 『혁명전후』 등의 작품에 나타난 과거 전쟁협력에 기인하는 내면적 고뇌에 주목하면서도, 그 책임의식은 “전쟁책임이 아니라 오로지 일관되게 패전책임”이었다는 데에 히노의 개인적 한계와 시대적 한계를 동시에 보는 것 등이 일반적인 평가다.⁴⁴

앞서 요약한 「고백」 역시 일본이 구미 열강과 마찬가지로 식민주의를

우리들의 책임을 느끼며 대동아전쟁의 완수, 대동아문화 확립의 결의를 굳건히 하고, 뜻을 갖고 다음의 3개조를 선언하는 바이다. 1. 우리는 대동아공영권 내 각 민족의 문화를 높이고, 또한 그 대조화(大調和)의 달성을 위해 공헌을 기한다. 2. 우리는 대동아공영권 내 각 민족의 탁월한 정신을 응집하여 상호 보익(補翼)하고, 이로써 대동아건설의 공동 목표에 매진하도록 기한다. 3. 대동아공영권 내 각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고 대동아민족정신의 고양을 기한다.”

또한 히노는 패전을 맞이한 후에 자신의 심중을 토로한 사적인 노트에 대동아문화자대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을 남긴 바 있다. “이제 모든 것은 공허하게 철저히 수포로 돌아갔지만, 과연 모든 것이 헛수고였던 것일까. 남방의 제(諸)지역에서는 버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모든 민족은 독립하고 혁명의 정열이 팽배히 끓어오르고 있다. 이는 무엇 때문인가. 지금은 말하는 것이 일체 허락되지 않지만 중국에 뿌린 여러 씨앗이 한 톨도 남지 않고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는 아무래도 생각되지 않는다.”(火野葦平, 『鈍魚庵』; 渡辺考, 『戦場で書く: 火野葦平と従軍作家たち』, 299~300쪽.) 여기서 “지금은 말하는 것이 일체 허락되지 않”는다는 함은 GHQ 점령하의 상황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인용한 문장은 히노의 사후에 공개된 사적인 기록인 만큼 그가 패전을 기점으로 대동아공영권의 ‘신념’을 완전히 방기하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43 田中艸太郎, 『火野葦平論: 付:戦争体験・論の試み』, 126~134쪽. 가장 이른 시기에 단순한 ‘전쟁협력자’의 틀을 넘어 히노를 평가한 히라노 겐(平野謙)은, 전쟁협력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지만, ‘고바 야시 다키지(小村多喜二)와 표리를 이루는 시대의 희생으로 히노를 바라보는 시선도 필요하다’고 제기한 바 있다. 히노의 평전을 쓴 다나카 소타로(田中艸太郎)는 “히노에게 있어 국가, 역사, 전쟁의 상관관계는 결국 ‘심정’적 사유의 대상일 뿐 ‘사상’적 추궁의 소재는 되지 못했다.”라고 평가한다(田中艸太郎, 『火野葦平論: 付:戦争体験・論の試み』, 127쪽).

44 池田浩士, 『[海外進出文学論]第I部 火野葦平論』, インパクト出版会, 2000, 11쪽 등. 히노의 유작이 된 자전적 소설 『혁명전후』에는 귀환 병사가 “나는 히노 아시헤이를 원망하고 있어요. 우리들, 그 사람이 쓴 것을 읽고 이 전쟁은 이길 것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했단 말이지요. 어찌 된 일인지 이렇게 되어 버려서...”, “쓰지 써, 당신은 패전의 책임을 느끼고 있었지요?”라고 주인공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다. 병사와 강한 감정적 유대를 가지고 있었던 히노가 느꼈던 ‘패전책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펼쳤던 사실을 모호하게 은폐한 채 서양 대 아시아라는 틀에서만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역사를 서술한다는 점에서, 가해 책임의식의 결여와 문학의 정치성에 대한 인식의 안이함 등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본고의 관심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와 같은 발언이 아시아제국회의의 참가국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 즉 1950년대 아시아에서 수용된 구체적 맥락 쪽에 있다.

히노는 아시아제국회의에 참관한 견문을 그의 사적인 여행일기 『아시아 여행』(アジアの旅, 북규슈문학관 소장)에 소상히 기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가 회의에서 인상 깊게 들었던 대목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일본의 국제연합 가입 승인을 촉구한 인도 대표의 발언과, 중국 대표단 단장으로 회의에 참석한 귀모뤄의 연설을 들은 감회를 각각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 아래에 차례로 인용한다.

일본은 평화적 재건에 매진해 주어야만 한다. 일본의 책임을 물을 생각은 아시아에는 없다.(인도 대표의 발언)⁴⁵

일본과 중국 사이를 평화적으로 잇는 것, 중국인은 일본에 대해 매우 동정하고 있다. 이 두 나라를 잇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중국, 일본이 아닌 일본정부 위에 있는 미국정부이다. 그러나 미국이 일본의 재군비를 강요하고 있다. 우리들의 손을 일본인 앞에 내민다. 평화를 위해 함께 걸어가자.(박수, 귀모뤄도 스스로 박수, 코 끝이 썩)⁴⁶

상기 인용에서도 거듭 확인되듯이, 요컨대 아시아제국들로 하여금 일본에 ‘손을 내밀게’ 만든 요인은 냉전의 현실이었다. 미국이라는 새로운 ‘제국’의 헤게모니하에서 진행된 제3세계의 ‘탈식민’은, 일본제국의 과거를 불

45 『アジアの旅(I)』, 북규슈문학관 소장. 増田周子, 『1955年アジア諸国会議とその周辺』, 98쪽에서 재인용.

46 『アジアの旅(I)』, 북규슈문학관 소장. 増田周子, 『1955年アジア諸国会議とその周辺』, 99쪽에서 재인용.

문에 붙임으로써 전후일본을 냉전적 헤게모니에 대항하기 위한 아시아의 ‘연대’ 안으로 끌어들이고자 했던 것이다. 특히 위의 귀모류의 발언은, ‘반미 평화주의’에 기대어 일·중 양국이 쉽게 연대할 수 있었음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냉전적 역학 아래 과거 일본제국의 피점령 국가들과 대면한 아시아제국회의가, 히노에게는 ‘제국’의 기억의 소거를 추진받고 ‘아시아’와의 화해를 실감하는 장으로도 기능했다는 점이다.

다시 성명문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히노가 제안한 문화교류안은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청사진을 담고 있었을까? 히노는 “이 아시아의 결합을 문학의 아름다운 고리로 이어 찬란한 평화의 화원을 출현시키고 싶은 욕망과 꿈에 차 있다.”라고 희망차게 선언하고, 이어서 문학계를 대표하여 당시 일본의 문단 상황을 보고하면서 일본과 아시아와의 문화교류가 취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누구라도 평화를 바라지 않는 자는 없겠으나, 진정으로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평화를 고대하는 자는, 전화(戰火)에 휩쓸린 경험을 지닌 이들이 아닐까? 전쟁의 처참함은 전쟁터에 투입된 이들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기억을 새겨 넣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도처가 전쟁터가 되었던 아시아인들의 전쟁에 대한 증오는 깊다. 또한 패배한 일본인, 특히 세계 최초로 두 발의 원자폭탄을 맞았으며 더 나아가 비키니 환초에서 수폭의 죽음의 재(死の灰)까지 뒤집어쓴 일본인은, 마음속 깊이 전쟁을 증오한다. 전후 일본에서는 전쟁에 반대하는 새로운 문학들이 많이 탄생했으며 원폭소설이 발표되었다. (...) 이러한 소설을 꼭 아시아인들이 읽었으면 한다.⁴⁷

여기에서 히노는, ‘전화에 휩쓸린 경험’이라는 표현을 통해 연합국과 교전하며 아시아를 전쟁터로 만들었던 또 하나의 제국적 주체인 일본의 책임을 삭제한 채로, 아시아와 일본을 동일선상에 배치한다. 미국을 대타자로

47 火野葦平, 「全アジアを文学の美しい鎖で」, 219쪽.

상정함으로써 성립되는 ‘폭력의 희생자=일본’의 자아상을 서양제국과 아시아와의 관계에 겹쳐 놓고, 나아가 세 차례에 걸친 ‘피폭’의 경험을 전경화시킨다. 이로써 히노는 냉전 아시아의 평화적 재건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전후일본을 아시아를 향해 어필하고자 하였다.

여기까지, 아시아제국회의에 나타난 평화주의 담론을 검토하였다. 그 속에서 전후일본이 제3세계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수복하기 위한 핵심적 테제로 ‘반핵평화’의 피폭 담론이 기능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는 냉전시대 헤게모니였던 미국과 소련에 대한 대항과 표리관계를 이루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한편으로 미소와의 관계 속에서 일본의 평화주의 담론은 어떻게 나타났을까? 다음 장에서는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전후일본의 평화주의를 조명해 보기로 한다.

4. 미소냉전과 일본의 ‘평화주의’: 1957년 일리아 에렌부르크의 방일에서 1958년 히노의 미국시찰까지

1950년대는 유례없는 핵실험의 시대였다. 양대 냉전진영의 맹주 미국과 소련은 경쟁적으로 원수폭 개발에 집중하였고, 1957년 5월에는 영국이 태평양의 크리스마스섬에서 수차례에 걸친 수폭실험을 실행하였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점은, 이처럼 치열해진 핵개발경쟁이 미소 간 국제외교에서 일본의 존재감을 부각시켰다는 사실이다. 영국의 핵실험을 앞둔 1957년 4월 18일자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은, “일본의 주장을 무시할 수 없게 될수록 미소의 일본에 대한 압력 공세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미소 간 여론전 공방을 전하면서, “일본의 입장은 ‘방사능의 골짜기’(放射能の谷間)일 뿐만 아니라, 핵실험을 둘러싼 국제외교의 골짜기”이며, “일본만이 정치적 입장을 떠나 큰 목소리로 실험반대를 외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보도

하였다.⁴⁸ 이는 핵의 긴장 고조를 배경으로 국제사회에서 ‘유일 피폭국’ 일본의 존재감이 부각되어간 정황을 선명하게 보여 준다. 그렇다면 이러한 핵 상황 속에서 일본의 평화주의는 미소냉전과 어떻게 맞닿아 있었을까?

이 장에서는 먼저 문학의 영역에서 소련의 문화적 공세와 평화주의 외교가 교차한 사례로 일리아 에렌부르크의 방일이라는 문화사적 사건을 주목해보고자 한다. 스탈린 사후에 도래한 긴장 완화를 뜻하는 냉전 용어의 기원이 된 장편소설 『해빙』(*The Thaw*, 1954)의 작가로 잘 알려진 에렌부르크는 1957년 4월, 일소공동선언(1956년 10월)에 입각한 양국의 국교 회복 후 첫 문화사절로서 일본을 방문하였다. 일본 측 문화인사들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방문으로, 초청 기획을 위해 일본에서는 작가, 평론가, 러시아 문학자 등 200여 명을 중심으로 ‘에렌부르크 환영위원회’가 조직되어 작가를 맞이하였다.⁴⁹

에렌부르크 방일의 배경에는, 미소가 상호대항적으로 전개한 문화냉전이 있었다. 1950년대에 미국과 소련은 자국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 영향력을 확대할 목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경쟁적으로 세계 각국과의 교류를 가속화시켰다. 1955년에 미국 국무성이 문화대사로 세계 각지에 파견한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윌리엄 포크너(William Faulkner)의 3주간에 걸친 방일을 미국에 의한 문화 공세의 대표적 사례 가운데 하나로 꼽을 수 있다면,⁵⁰ 에렌부르크의 방일은 그 성격과 영향력 면에서 이에 비견할 만한 소련의 대항을 상징하는 문화외교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에렌부르크의 방문은 일본 측의 민간 초청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미국 국무성의 기획과 예산으로 파견된 포크너와는 대별되지만, 양아람이 에렌부르크의 문화외교를 “민

48 原水爆禁止日本協議会 編, 『人類の危機と原水爆禁止運動Ⅱ』, 原水爆日本協議会, 1957, 364~365쪽.

49 양아람, 「1957년 소련 작가 에렌부르크의 일본 방문과 일본의 ‘해빙」, 『동아시아문화연구』 77권, 2019. 5., 188쪽. 양아람의 논고는 현재까지 에렌부르크 방일에 관한 유일한 선행연구로, 문화사와 번역수용의 관점에서 이를 분석하고 있다.

50 윌리엄 포크너의 방일에 관한 연구로는 藤田文子, 『アメリカ文化外交と日本: 冷戦期の文化とひとの交流』, 東京大学出版会, 2015을 참조.

간 차원의 초청에 공적인 성격이 가미”되었다고 평가한 바 있듯이,⁵¹ 실제로 에렌부르크는 소련을 대표하는 문화대사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일본의 미디어 역시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테면 에렌부르크는 일본에 체재하는 동안에 『아사히신문』에 기고한 글을 통해 “과거에는 반목도 있었으나 전쟁을 알고 있는 소련과 일본의 양국 국민은 평화의 가치를 알고 있으며, 소련은 일본문화에 대해 경의를 갖고 있”다고 발언하면서,⁵² 일본의 문화를 이해하고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으로서 소련을 어필하였다. 또한 그는 “얼음은 녹았다. 때는 봄을 향하고 있다. 우리 양국 국민은 서로 호의를 느끼고 있으며 사이좋고 평화롭게 살고 싶다”고 일소 간 해방국면과 평화공존을 향한 염원을 전하고, “소비에트 독자들 사이에 이 이웃나라에 대한 우호적인 마음을 확산시키고 강화하기 위해 나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라고 일본 국민들을 향해 공언하였다.⁵³ 실제로 귀국 후에 에렌부르크는 일본에서의 견문을 기록한 『일본인상기』를 소련의 잡지 『외국문학』에 기고하여 이를 실친했는데, 그의 글은 곧바로 일본어로 번역되어 『중앙공론』(中央公論, 1957. 10.)과 단행본 『일본인상기』(日本印象記, 1957. 11.)를 통해 일본의 독자들에게도 전해졌다.⁵⁴

한편, 에렌부르크를 초청한 일본 측에서는 개인적 기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문사나 방송사 등의 후원을 통해 자금을 마련했는데, 이러한 자금조달 방식으로 인해 작가의 방일은 문학 애호가층을 넘어 널리 사회적 파급력을 갖게 되었다. 초청을 후원한 아사히신문사(도쿄, 오사카), 서일본신문사, 중부일본신문사, 니가타일보사 등의 요청으로 각 지방에서 강연회 및 좌담회가 열렸을 뿐 아니라, 그때마다 각지(各紙)가 이를 기사화했기 때문이다.⁵⁵ 그 결과 에렌부르크의 전국순회는 각종 미디어를 통해 연일 보도되었

51 양아람, 「1957년 소련 작가 에렌부르크의 일본 방문과 일본의 ‘해방’」, 187쪽.

52 イリヤ・エレンブルグ, 「いとぐち」, 『朝日新聞』, 1957. 4. 20., 5면.

53 イリヤ・エレンブルグ, 「いとぐち」, 5면.

54 イリヤ・エレンブルグ, 「日本印象記」, 『中央公論』, 1957. 10.; イリヤ・エレンブルグ著, 稲田定雄訳, 『長崎の雨』, 勁草書房, 1971. 초출은 소비에트에서 발행된 『외국문학』(外国文学) 1957년 8월호.

55 山本健吉, 「騒がれすぎたエレンブルグ」, 『新潮』, 1957. 7., 97쪽.

고, 문예지와 종합잡지 역시 일제히 좌담회와 강연회 참관기 등을 게재하였다.⁵⁶

이렇듯 냉전기 일소 간 문화교류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에렌부르크의 방일은 그 자체로서 다방면에서 고찰을 요하지만, 본고의 논지와 관련하여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에렌부르크의 방일에서 ‘반핵평화’가 중심적 외교 메시지로 부각되었다는 사실이다.⁵⁷ 이는 첫째로, 에렌부르크의 이력에 기인한다. 소련을 대표하는 작가 외에도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평화운동가의 얼굴을 지닌 에렌부르크는, 1950년 스웨덴에서 열린 세계평화옹호회의에서 발표된 ‘스톡홀름 어필’(Stockholm Appeal)의 발안자 가운데 한 명이었으며, 방일 당시에는 세계평화평의회 부의장과 평화옹호소비에트위원회 부의장직을 맡고 있었다.⁵⁸ 더욱이 공교롭게도, 작가의 방문은 원수폭 실험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시점에 이루어진 방일이었기에, 원수폭 문제에 관한 소련의 입장을 알고자 하는 일본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방일 동안 에렌부르크는 원수폭 문제에 대한 발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를테면 에렌부르크의 일본 도착을 전하는 4월 8일자 『아사히신문』의 같은 지면에는, 미국, 영국, 소련의 원수폭 실험에 항의하기 위한 일본의 사절단이 파견되었음을 알리는 기사가 나란히 게재되었는데, 에렌부르크는 하네다 공

56 대표적인 잡지 게재 기사는 다음과 같다. 『新日本文学』 1957. 6.에 게재된 なかのしげはる, 「光太夫ゴンチャロフ以来: エレンブルグ氏を迎えて」; 原卓也, 「エレンブルグ氏の来日によせて」; 牛島春子, 「福岡にエレンブルグ氏を迎えて」; 荒正人, 「座談会 エレンブルグ氏に訊く」, 『群像』, 1957. 6. 등. 신문기사로는 「来日するエレンブルグ氏」, 『読売新聞』, 1957. 3. 26., 夕刊 2면; 「ソ連の文化宣伝戦? エレンブルグ, ショスタコーヴィチ氏の派日」, 『読売新聞』, 1957. 3. 28., 夕刊 2면; 「エレンブルグ夫妻を囲んで」, 『朝日新聞』 1957. 4. 10., 3면; 加藤周一, 「エレンブルグ氏との対話(上),(下)」, 『毎日新報』 1957. 5. 3.~4.

57 에렌부르크를 맞이한 일본 측의 관심은 문학작품보다도 사회주의 리얼리즘, 스탈린 비판, 헝가리 동란 등 정치문제에 집중되었다. 하지만 하라 다쿠야(原卓也)에 따르면, 에렌부르크는 정치적 의미를 지닌 행위는 삼가겠다는 조건으로 일본 외무성의 비자를 발급받았기에 이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였다. 原卓也, 「エレンブルグ滞日記」, 『新潮』, 1957. 6., 102쪽. 이와 관련하여 야마모토 겐키치(山本健吉)는 “정작 궁금했던 스탈린 비판이나 헝가리 동란에 대한 의견은 듣지 못했고”, “유일한 정치적 견해는 원수폭 병기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 정도”라고 회고한 바 있다. 山本健吉, 『騒がれすぎたエレンブルグ』, 『新潮』, 1957. 7., 98쪽.

58 イリヤ・エレンブルク著, 稲田定雄 訳, 『長崎の雨』, 勁草書房, 1971, 201쪽.

항에 도착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참석한 세계평화평의원회를 언급하면서 일본 국회의 원수폭 실험 금지 결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⁵⁹

또한 에렌부르크는 3주 동안 일본에 체재하면서 도쿄(東京), 후쿠오카(福岡), 오사카(大阪), 나고야(名古屋), 니가타(新潟) 등지에서 개최된 강연과 좌담회를 포함한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는데,⁶⁰ 이러한 전국순회의 하이라이트로 계획된 것이 나가사키 방문이었다. 이는 작가 자신의 ‘강력한 희망’에 따라 포함된 일정으로, 에렌부르크는 우라가미(浦上)의 그라운드 제로와 평화공원 등을 시찰하고, 나가사키 시장 및 피폭자들과 만남을 갖기도 했다. 그런데 이때 일본문학자를 대표하여 나가사키에서 에렌부르크를 맞이한 작가가, 다름 아닌 히노 아시헤이였다. 히노는 에렌부르크와 함께 도쿄와 후쿠오카에서 열린 강연회에 참석한 후에 러시아 문학자인 요네가와 마사오(米川正夫), 나카무라 하쿠요(中村白葉), 이나다 사다오(稲田定雄) 등과 함께 나가사키에 동행하였다.

히노가 나가사키의 안내역을 맡게 된 구체적인 경위는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그 이유로, 첫째로는 와카마쓰(若松) 출신으로 규슈지역을 대표하는 작가로서의 영향력이 고려되었을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두 작가의 만남은 히노의 일련의 문화외교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붉은 나라의 여행자』에서 히노는 중국에 체재하는 동안에 소련 정부로부터도 초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바 있다.

[나카무라] 간에몬(中村翫右衛門) 씨는, 최근 받아 본 『아카하타』(アカハタ)에 헬싱키의 평화애호자대회 참가자로 히노 아시헤이를 추천했다는 기사가 나와 있었다고 알려 주면서, 꼭 소련에 가라고 권한다. 중국의 평화위원회에서도, 희망할 경우 헬싱키에 다녀오는 귀국길에 소련을 시찰하고 다시 베이징을 경유해서 일

59 「原水爆実験の禁止」日本国会の決議支持」：エレンブルグ氏が来日」, 『朝日新聞』, 1957. 4. 8., 7면.

60 山本健吉, 「騒がれすぎたエレンブルグ」, 96쪽.

본으로 돌아갈 때까지 지원을 해도 좋다고 제안하고 있다고 한다. 나는 당혹스럽다. 종전 직후에 나는 『아카하타』로부터 문화전범 제1호로서 혹독하게 규탄 받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인도의 아시아제국회의에 갈 때도 공산당 관계자로부터 추천을 받았고, 지금은 중국에서 헬싱키행과 함께 소련행까지 신세 지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소련에서 돌아오면 공산당 지지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인가.⁶¹

히노를 포함한 아시아제국회의 대표단 일행은 결국 여정상의 이유로 일정이 맞지 않아 소련행은 단념하게 되는데, 그 대신 히노는 그로부터 2년 후에 일본을 방문한 에렌부르크와 나가사키에 동행함으로써 일소 간 냉전외교의 장에 서게 된 것이다. 상기 인용한 발언에서는 미소 간 냉전 진영의 대립이 일본 국내의 정치 지형과도 연동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에렌부르크와 히노의 만남은 소련과 일본 내 공산주의자 양측의 문화적 공세가 맞닿는 지점에서 성사된 사건이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두 작가는 ‘나가사키’를 둘러싸고 어떠한 메시지를 발신했을까? 에렌부르크는 『일본인상기』에서 나가사키 방문을 언급했으며, 이 방문에서 영감을 얻어 후년 일본에서 「나가사키의 비」(長崎の雨)로 번역되는 시를 발표하기도 했다.⁶² 한편 히노는 『문예춘추』(文藝春秋)지상에 에렌부르크의 나가사키 방문을 전하는 에세이 「나가사키의 비」(長崎の雨)⁶³를 발표하였다. 두 글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인상기』에서 에렌부르크는 여행의 견문과 일본문화에 대한 관찰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가 목도한 나가사키의 풍경을 묘사하였다. 원폭 투

61 火野葦平, 『赤い国の旅人』, 260쪽.

62 イリヤ・エレンブルク 著, 稲田定雄 訳, 『長崎の雨』. 이 시집은 1959년 10월 모스크바의 『소비에 트작가』출판소(『ソビエト作家』出版所)에서 간행된 『시편 1938-1958』(詩篇 一九三八~一九五八)을 전문(全文) 번역한 것으로, 「나가사키의 비」는 무제(無題)인 원시에 역자 이나다 사다오(稲田定雄)가 붙인 제목이다. “인간의 양심이 얼마나 울며 슬퍼하고 있는지에 관한/너무나 넉넉머리 나는 이야기 있다.”로 시작되는 이 시의 말미에는 “나가사키 1957년”이라고 기입되어 있다.

63 火野葦平, 「長崎の雨」, 『河童会議』, 東京: 文藝春秋社, 1958. [초출] 『文藝春秋』, 1957. 6.

하로부터 10여 년이 지나 일견 여느 도시와 마찬가지로 재건이 이루어진 듯 보이는 나가사키에는, 여전히 원폭의 후유증에 시달리며 목숨을 잃어 가는 사람들이 있다. 에렌부르크는 “원폭의 저주는 구름처럼 일본의 하늘을 뒤덮고 있다”고 전하고, 그럼에도 이에 그치지 않고 원자력병기의 비극이 계속되고 있는 핵시대의 묵시록(默示錄)을 이야기한다.

이 글에서 특징적인 것은, 그가 핵의 주체를 명시한다는 점이다. ‘미국인’이 투하한 원폭의 비극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비키니섬에서 실행된 ‘미국인’의 수폭실험은 다시 제5후쿠류마루의 23인의 어부들이 방사능증(放射能症)을 앓게 했으며, “일본의 하늘에는 방사능 비가 내렸다.” 스트론튬 90을 머금고 내린 비에는, “태고의 계시문학의 불길한 예언자들조차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죽음”이 깃들여 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일본에 체재하던 동안에 ‘영국인’이 준비하고 있었던 크리스마스섬 수폭실험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을 언급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원자병기를 증오할 수 있는지, 가공할 실험에 사람들이 얼마나 분격(憤激)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방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전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는다.

“내가 나가사키에 체재하는 동안 계속 비가 내렸다. 비는 만개한 철쭉에, 하역 노동자에, 기념비에, 그리고 분홍 빛, 푸른 빛, 은빛 생선 시장에 내리고 있었다. 비와 스트론튬 90이, 비와 눈물이, 나가사키의 비가. 나는 나가사키를 떠났다. 하지만 이를 잊을 수 없다. **일본은 지금, 여러 나라 가운데 하나가 아닌, 원고(原告)이다.** 원자병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그 누구도 양심의 평안함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강조는 인용자)⁶⁴

이처럼 ‘미국’과 ‘영국’의 원수폭 실험을 언급하고, 여기에 ‘인류’를 대표하여 원수폭병기에 항거하는 ‘일본’을 대치시킨 에렌부르크는, 이어서 과거 스톡홀름에서 나가사키를 이야기하며 원폭금지를 위해 일어섰던 자신의 기

64 イリヤ・エレンブルグ 著, 原卓也・山田茂勝 訳, 『日本印象記』, 中央公論社, 1957, 66쪽.

역을 회상함으로써 일본의 동반자 ‘소련’을 어필하였다.

나가사키 방문에 이어 오사카에서 열린 강연회에서도 에렌부르크는, 일본 측 강연자와 나눌 공통의 문제로서 “평화와 문학”이라는 주제를 소망했으며, “원수폭 문제에 대해 힘주어 발언하면서 자신의 여생을 원수폭 금지를 위해 바쳐도 좋다고까지 단언”했다. 일본 측을 대표하여 아베 도모지, 이노우에 야쓰시(井上靖)와 함께 등단한 프랑스문학자이자 평론가인 나카지마 겐조(中島健蔵)는 『신일본문학』에 게재된 강연회를 보고하는 글에서, 에렌부르크의 이 발언을 ‘우리’에게 보낸 “최대의 선물”이라고 치하하고, “우리가 에렌부르크 씨에게 답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또한 일본인의 원수폭금지운동의 열의일지도 모른다”고 화답하면서, “이러한 기반 위에 설 때 다시금 민족을 넘어서 새로운 문제가 확장될 것”이라고 피력한 바 있다.⁶⁵ 원수폭에 대한 반대가 소련과 일본을 하나로 묶어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에렌부르크가 평화주의적 메시지를 발신하는 상황에서, 히노는 에렌부르크의 나가사키 방문을 어떻게 전했을까? 작가의 픽션이 가미된 것으로 보이는 에세이 「나가사키의 비」에서 히노는, 나가사키에 동행하며 관찰한 에렌부르크의 모습을 묘사한다. ‘원자폭탄 낙하 중심지’의 비석 앞에서 ‘숨막힐 정도의 표정’을 짓고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묵념에 잠긴 에렌부르크의 모습에서, 히노는 작가의 진심 어린 애도를 읽어 낸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히노의 필치는, 빗속에 늘어선 환영인과 가운데서 들려오는 군중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삼입함으로써, 소련으로부터 거리 두기를 시도한다. 예컨대 그는, “별로 젖지 않는 편이 좋아. 소련의 원폭 방사능이 있을지도 모르니까.”라는 어느 군중의 목소리를 묘사한 후에 “최근, 영국이 크리스마스섬에서 하고 있는 수폭 실험이나 미국의 원폭실험 발표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소련이 번번이 무경고 실험을 하는 것을 비꼰 것인지도 모른다.”⁶⁶라고 논평을 덧붙임으로써, 에렌부르크가 이야

65 中島健蔵, 「エレンブルグと原子爆問題」, 『新日本文学』, 1957. 6., 79쪽.

66 火野葦平, 「長崎の雨」, 285쪽. 에렌부르크가 일본에 체재하는 동안에도 소련이 수차례에 걸쳐 진행한 핵실험이 보도되었고,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정부는 소련에 핵실험중지를

기하지 않은 ‘소련’의 핵을 상기시킨다. “미소 관계나 세계정세 여하에 따라서는 소련의 원폭이 일본에서 터지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또 다른 익명의 목소리는, 소련을 평화의 동반자가 아닌 냉전 폭력의 위협으로 표상한다. 더 나아가, “일소 국교 회복은 좋지만 [소련은] 문화교류를 명목 삼아 작가나 음악단, 인형극 등을 파견해서 일본의 적화(赤化)를 꾀한다”는 군중의 목소리를 통해, 소련의 문화 공세 아래 놓여 있는 일본을 노출시킨다.

나가사키에서 열린 간담회를 전할 때에도 히노는, 핵경쟁의 주축으로 소련을 전경화한다. 「나가사키의 비」의 묘사에 따르면, 간담회 석상에서 에렌부르그는 “노 모어 나가사키”는 인류의 숙원”이라고 강조하면서 “나가사키 시민들에게 원폭금지운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하고, 나가사키 시장과 굳게 악수한 후에 피폭자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런데 이때 한 피폭자가 일어서서 소련이 무경고 실험을 하는 데 대해 큰 유감을 표하면서, “에렌부르그 씨의 말에는 감동하지만 (...) 소련에 대한 불신과 의혹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발언한다. 이에 에렌부르그는 “소련이 국제연합에서 [핵병기] 금지와 등록을 주장해도 어느 나라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응대하면서, 소련의 실험은 국내에서 행해졌으며, 미국과 영국이 실험을 하는데 소련만이 그만둘 수는 없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에렌부르그의 모습을 전하면서, “노 작가는 마치 소련정부의 대변인처럼 돌연 문학자에서 멀어졌다.”라고 논평을 가하는⁶⁷ 히노의 시선은, 진영논리의 대변자로서 작가를 바라보고, 냉전적 공세와 일체가 된 소련의 평화주의 메시지를 폭로한다.

다른 한편으로, 에렌부르그와의 만남에서 히노가 원수폭문제와 더불어 관심을 둔 것은 “붉은 나라의 문학과 작가의 자유 문제”였다. 이와 관련하여, 에렌부르그와 함께 후쿠오카의 강연회에 등단한 히노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고 엄격하게 규정된 틀 안에서의 문학을 진정 예술이라 할 수

요청하였다.

67 火野葦平, 「長崎の雨」, 293쪽.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개진하였다.⁶⁸ 「나가사키의 비」에서도 히노는 “일소친선이나 문화교류는 영합은 아니고 물론 환영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중요한 문제에 대해 초점을 흐리거나 아첨하는 말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명시하고, “소련이든 중국이든 ‘붉은 나라’의 작가들에게 자유는 없다”는 인식을 거듭 표명하였다. 또한 이미 중국과 북한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히노는, 에렌부르크에게서 중공(中共)에서 만난 라오서(老舍)와 비슷한 인상을 받았다고 적으면서, “붉은 나라 가운데, 문학 면에서도 소련은 대형관, 중국은 중형관, 북한은 그 소형관”이라는 관점을 제시하기도 했다.⁶⁹

이상으로 살펴본 에렌부르크의 방일은 소련의 ‘평화주의’ 외교에 작동한 문화냉전의 역학을 선명하게 보여 주는 사례다. 그런데 더욱이 흥미로운 것은, 에렌부르크의 방일로부터 1년 후, 부분적으로는 이때의 발언이 주목받아, 히노는 이번에는 미국 국무성의 ‘포린 리더 프로그램’(Foreign Leader Program)의 초청으로 미국을 시찰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히노는 1958년 9월 24일부터 11월 19일까지 약 2달간에 걸쳐 미국 각지를 시찰하였는데, 히노의 선고 경위를 기록한 미국 측 기록문서에는, 히노가 지닌 공적인 영향력과 더불어, 그가 선정된 이유가 다음과 같이 언급된다.

그는 붉은 나라를 여행했고 오키나와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그의 저술은 일반적으로 공산주의에 대해 비판적이며, 기본적으로 미국 및 자유세계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입장이다. 결국 그는 전시에 ‘애국적인 작가’이기는 했으나, 현재 ‘우익’이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다. 최근에 소비에트 작가 일리아 에렌부르크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다마이(히노의 본명, 인용자 주)는 공중 집회에서 그가 보고 온 공산중국과 마찬가지로 소련의 작가

68 火野葦平, 「長崎の雨」, 284쪽.

69 火野葦平, 「長崎の雨」, 284~285; 294쪽. 히노는 『나가사키 니치니치신문』(長崎日日新聞)에 실린 좌담회 기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였다. 火野葦平, 「自由からカッパまで: 火野葦平にきくよもやま話」, 『長崎日日新聞』, 1957. 4. 26., 3면.

와 인민들 역시 충분한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졌다. 이는 좌익의 후원을 받은 집회를 혼란에 빠트렸다. 따라서 우리는, 대중에 대한 공적인 영향력과 그의 통찰력에 비추어 그가 이상적인 후보가 될 것이라 판단하는 바이다.⁷⁰

이 문장은 미소 간에 적대적 문화냉전의 자장이 연쇄적으로 작동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미국의 대일본 문화정책에서 일본제국의 전쟁책임 청산보다도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냉전적 공세가 우선시되었음을 명징하게 보여 주는 기록이기도 하다.

미국에 체재하는 동안 히노는 호놀룰루, 샌프란시스코, 뉴욕, 워싱턴, 보스턴, 리틀락 등 각지를 여행하였고, 그 가운데 일부 여정은 기행문 『아메리카 탐험기』(『アメリカ探検記』, 1959)에서 묘사된 바 있다. 히노가 관찰한 미국의 모습은 본고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기로 한다.⁷¹ 다만 뉴욕 방문을 담은 한 장면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오른 히노가 수소폭탄을 뉴욕 상공에서 터뜨릴 것을 몽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한 구절은 주목해 두기자 한다.

수소폭탄을 한 발, 뉴욕시 상공에서 폭발시킨다면 얼마나 재미있을 것인가. 미국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한 발씩 원폭을 터뜨렸는데, 그 경험을 자신들의 도시에서 해 보면 좋을 것이다. (...) 소련과 미국에 영국까지 합세하여 원수폭 개발 경쟁을 하고 있는데, 타인의 도시에 명중시킬 생각만 하고 자신들의 도시는 무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원수폭 실험은 네바다 계곡 깊은 곳이나 비키니 같은 데에서 하지 말고, 이 뉴욕에서 해 보는 것이 성능검사를 위해

70 "Supplementary Information on: TAMAI, Katsunori", Box 511.943/10-157, NND891407, National Archives and Record Administration, College Park, MD.

71 미국 도향의 경위와 미국 관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줄고 「히노 아시헤이의 냉전기행」, 『일본학보』, 2019. 8.을 참조.

가장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⁷²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은 반미여론 억제를 위해 문화냉전을 통해 개입하고 있었다. 하지만 인용한 장면에서는 그러한 역학 아래 미국에 초청된 히노가, 소련과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해서도 ‘반핵평화’에 입각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핵을 둘러싼 국제적 여론전이 가열화되면서, ‘유일 피폭국’ 일본을 자신의 진영 쪽으로 끌어들이고자 미소 양측의 문화냉전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문화교류의 장에 소환된 히노는, 미소 양쪽 모두를 조망하면서 ‘핵’으로 상징되는 냉전적 폭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과 소련에 대해 발언하는 히노는 냉전의 적대성에서 자유로운 ‘공평한’ 시점을 강조하고, 양 진영에 의해 표출된 냉전의 폭력성을 환기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한다면, 미소의 폭력을 비판하는 히노의 이러한 담론이야말로, 그와는 대조적으로 일체의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운 보편적 ‘평화주의’의 체현자로서의 전후일본상(像)을 수행적으로 구축해 갔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지만 그러한 발언이 이루어지는 자리는, 역설적이게도 냉전의 정치에 의해 부여된 것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히노의 ‘평화주의’적 담론은, 냉전을 전유하면서 ‘평화국가’ 일본의 표상을 구축해 간 궤적으로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5. 나가며

이 글에서는 히노 아시헤이를 중심으로 전후일본의 평화주의를 글로벌한 냉전 정치의 맥락에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고를 통해 밝혀진 바와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72 火野葦平, 『アメリカ探検記』, 雪華社, 1959, 109쪽.

첫째, 히노의 행보와 그가 남긴 담론은, 적대와 연대가 글로벌한 차원에서 연쇄적으로 작동한 냉전 시기 문화외교의 자장과, 그러한 냉전질서 속에서 전후일본에게 부여된 자리를 생생하게 보여 준다. 아시아제국회의를 통해 고찰한 바와 같이, 구제국 일본과 신생 독립국 사이를 봉합한 주요한 국제정치적 요인은, 냉전 구조로 인한 미소 강대국의 제국적 헤게모니의 지속이었다고 볼 수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헤게모니로 부상한 냉전의 중주국 미국의 위협 앞에 제3세계 내셔널리즘과 공산주의가 연대하는 가운데, ‘서구(제국)-아시아’와 ‘자유진영-공산진영’의 대립 축이 교차하는 틈새에서, 전후일본은 일찌감치 ‘아시아’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한편, 미국과 소련은, 상호대립 구도 속에서 일본을 자신의 진영으로 끌어들이고자 했다. 나아가 일본과 ‘아시아’와의 연대가 ‘미국’을 매개항으로 하는 삼각구도 속에서 성립된 사실은, 일본의 대아시아 관계와 대미 관계가 표리를 이루며 연동되고 있었음을 드러낸다. 아시아적 지평에서 냉전의 사유가 필요한 까닭이다.

둘째, 전후일본의 평화주의는 전쟁 경험에 뿌리를 둔 평화를 향한 결의의 발현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국제적 냉전의 역학 속에서 ‘유일 피폭국’ 일본의 ‘반핵평화’는 정치성을 띠게 되었다. 본고에서 고찰한 냉전 시기 문화외교의 장에서 ‘히로시마·나가사키-반핵평화’라는 기표의 함의는, 아시아와의 화해와 연대를 담보하는 구호로, 냉전의 반대진영에 대항하는 문화공세의 슬로건으로, 냉전적 폭력에 대항하는 보편적 평화주의의 상징으로, 다양하게 변주되었다. 언제 터질지 모를 핵전쟁의 위협 앞에, 세 번의 피폭을 통해 핵의 공포를 앞서 경험한 일본은 평화의 회구를 세계를 향해 어필했고, 이는 제국에서 ‘평화국가’로 전신한 전후일본의 내셔널한 자아상을 실체화하는 담론으로도 기능해 왔다.

셋째로, 본고의 논의는 일본의 ‘일국적(一國的) 평화주의’에 대한 재고를 촉구한다. 지금까지, 아시아에서 ‘열전’이 발발하는 가운데 일본은 ‘일국 평화주의’에 틀어박혀 폐쇄적 자아상을 구축해 왔다고 지적되어 왔다. 그런데 본고를 통해 드러난 것은, 냉전 시기 문화외교의 장이야말로 전후일본이

‘평화국가’의 자아상을 재정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다는 점이다. 아시아제국회의는, 일본이 전전과의 단절 위에 ‘평화국가’를 발신하고 승인받을 수 있는 외교적 무대였다. 또한, 일본은 진영 대립에 입각한 미소의 냉전적 폭력에 반대의 목소리를 냄으로써, 그러한 미소에 대한 반사(反射)적 이미지로서, 보편주의(휴머니즘)적 평화주의를 체현하는 새로운 자아상을 구축할 수 있었고, 이는 냉전 시기 적대적 두 맹주의 관계 속에서 추진되었다. 이처럼 전후일본은, 대외적 관계를 통해 국제적 평화에 공헌하는 ‘평화국가’로서의 실감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도, 1950년대 문화냉전이 전후일본의 세계 인식과 내셔널 아이덴티티 재정립에 미친 영향은 더욱 구명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처럼 ‘평화’의 구호가 오가는 가운데, 제국의 과거가 논의에 부쳐지는 일은 없었다는 사실은 다시금 기억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할 필요도 없이, 평화주의의 내실은 제국의 역사에 대한 자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⁷³ 그러한 의미에서, 히노가 아시아제국회의와 같은 시기에 일본제국의 구식민지였던 북한과 제국/전후일본의 폭력이 중첩된 오키나와를 방문하고 남긴 문학적 표상은, 본고가 고찰한 히노의 전후 평화주의의 내실을 비춰 내는 거울로써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표상의 분석을 통해 신/구 제국주의가 교차하고 중첩된 아시아에서 ‘제국’의 기억을 다시 묻는 작업은 향후 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73 일본인의 전쟁관의 변용을 통시적으로 고찰한 요시다 유타카(吉田裕)는, 1950년대 일본에서는 대외적으로는 필요최소한도의 전쟁책임을 받아들이면서 국내적으로는 전쟁책임 문제를 사실상 부인하는 역사인식의 ‘더블 스탠더드’가 성립했다고 규정한 바 있다. 평화주의의 내실은 ‘평화주의’적 담론과는 별개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吉田裕, 『日本人の戦争観: 戦後史のなかの変容』, 岩波書店, 2007, 91쪽.